

보행자 무단횡단 안하기 붐 조성

포천경찰서,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사고 예방위해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7월 18일 오전7시부터 9시까지 포천시 신읍동 소재 강병원 앞 사거리 및 티미널에서 경찰관 50명, 모범운전자 회원 18명, 녹색어머니 회원 15명, 자율방범대 등 총 120명이 참석해 '보행자 무단횡단 안하기 붐 조성'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포천경찰서 이인희 경비교 통과장은 "무더운 날씨에 홍보 캠페인에 참석한 경찰관,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회원에게 노고를 치하"했다.

또 소중한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 동참 홍보물(30cm 자) 및 전단지 등을 나누어주면서 "여름철 보행자들이 외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무단횡단

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홍보활동을 통하여 아름답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지"며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인희 포천경찰서장(가운데)이 녹색어머니회 회원에게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다.

광릉숲 풀벌레 소리를 찾아서

여름방학 기간 학생 숲 캠프운영

국립수목원에서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 및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름 학생가족 숲 캠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름 학생가족 숲캠프는 국립수목원의 울창한 숲속에서 아열대성 광릉숲의 아름다움과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1박 2일 동안 이루어지며,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수목원 무료 입장권과 함께 교재, 팸플릿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주간에는 산림박물관과 산림동물원의 관람, 산림환경



국립수목원에서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 및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름 학생가족 숲 캠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사가 해설하는 전문수목원 탐방, 공작교실 등의 체험학습이, 야간에 산길을 따라 숲을 관찰하는 야간 숲속탐방이 이루어진다. 또한 '광릉의 숲' 영화와 자연생태 DVD 상영도 있다.

여름 학생가족 숲캠프는 2회(8.02~8.03, 8.09~8.10)에 걸쳐 실시하며, 1회에 80명(학생 1명당 보호자 포함) 3~4명이 참가할 수 있다.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Fax: (031-540-1049)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참가비는 1인당 15,000원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추천! 한마당 다섯 가지 독약과 묘약 이야기

미국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킨 찰스 키터링은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 등 매사에 열정을 쏟았다.

83세 생일 때 그의 아내가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영구를 중단하고 좀 쉬시오. 그러자 키터링이 대답했다.

"오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흥하게 늙는다. 나는 항상 미래를 바라본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노년을 걱정한다. 건강하고 우아하게 보내려면 세 가지

시인의窓

바다의 비늘을 본적이 있는가

장숙희(구리문인협회회원)

마음을 적시고도 모자라
바위 끝 갈매기까지 삼키려는 동해바다에서
바다의 비늘을 보았다
칼날처럼 뾰족이 돌아 있는
누런 비늘을 드러내
하늘 향해

하늘씩 던지고 있다
푸른 수살로 부르짖고 있다
바다를 지키는 외로움을
내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바다에 오면
마음이 시리나보다

〈감상노트〉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보통 물의 발원지가 높은 산에서 시작됨을 알아 채린다. 그러나 나는 결코 물의 시원은 물의 실속이 아니라 하늘(구름)임을 따져서 믿고 싶다. 물은 유지를 굶어 굶어 못 거린다. 인간사 단물과 산물을 쫓아 가며, 신과 들림을 기웃거리다 끝내

바다에 떨어진다. 물은 출렁인다. 다시 물과 물이 손잡고 율령이다. 땅과 흙을 잇고 물과 물이 이루는 것이 태양의 끈을 잡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항구는 바다의 고향이며, 인간의 터전이며 침실이 되는가 보다.

안 익 수(시인)

‘抱川의 정신 형상화 實踐 노력’

포천예총 고문, 자문위원 위촉식 가져

(사)한국예총 포천지부(지부장 이희용)는 7월18일 고문·자문위원 및 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 전달식을 가졌다.

한국예총포천지부는 1988년12월30일 발족하여 제1, 2대 김진동 지부장, 제2대 강수동 지부장(직대)를 거쳐 지난 3월10일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되었고, 5월 19일 제3대 이희용 지부장이 취임했다.

포천예총은 산하에 5개 지부(국악, 문인, 미술, 무용, 연극)가 있으며 6월27일 한국예총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준을 받았다.

포천이란 지명 속에 녹아있는 진정한 포천을 찾아내고, 예술작품 속에 녹여내어, 가장 포천적인 정신을 형상화 하고 실천하는데 혼신의 힘을 경주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한 제3대 포천예총이 이날 위촉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이희용 전 경기도 교육위원 ▶강수동 삼우석재 회장 ▶이영재 포천매나리 무형문화재



이희용 포천예총지부장(사진 우측)이 최현주 지문위원(경민대 교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보유자 ▶박은국 포천시장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 ▶자문위원 ▶김광우 전 동아대교수 (미술 조각) ▶안익수 제3의 문화 발행인 (저술·편집) ▶김성렬 대전대교수 (문예창작) ▶오윤균 상명대교수(무대미술) ▶서석봉 상명대 겸임교수(연극공연) ▶김영복 대

진대 감사(문화정책) ▶윤우영 대진대 교수(연출, 뮤지컬) ▶박정근 대전대 교수(해의문화, 문학) ▶박문우 대전대 겸임교수(법률) ▶신강호 대전대 교수(영화, 미디어예술) ▶최현주 경민대 교수(무대디자인)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랑을 나누는 쉼터’ 개소식

영북면 노인복지시설 천사의 집 사랑 실천

노인복지시설 천사의 집(원장 이은희)은 7월18일 사랑의 쉼터 개소식을 갖고 영북면 저소득층 주민 70여명을 초청해 비빔밥, 잡채, 떡, 국, 김치, 과일 등 푸짐한 음식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날 영북면, 영북 적십자부녀봉사회, 영북면 부녀회, 승화식품 등이 후원하는 '사랑을 나누는 쉼터'는 저소득층 가구에 사랑과 정성이 담긴 식사를 제공해 소외감과 자책감에서 벗어나 활동적이고 서로 돕는 정신을 함양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사의 집 이은희 원장은 "중국어 갔을 때 탈북 노동자들을 보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으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



이은희 원장은 "중국어 갔을 때 탈북 노동자들을 보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으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

포천시 노인교통봉사대 발대식

노인교통사고 예방 노인회 등 53명 참석

포천시는 날로 늘어가는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18일 포천동 복지회관에서 박은국 포천시장을 이금중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회장이, 노인회 임원 및 봉사대원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노인회 교통봉사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고령층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포천시의 의지와 노인단체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결성되었으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는 어깨띠, 완장, 아광조끼, 후루라기 등 활동에 필요한 교통장비를 지원하며 노인교통봉사대의 봉사활동을 돕는다.

봉사대원들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한편, 앞으로 소홀음과 포천동 일대 교통사고 취약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포천시의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이희용 포천예총지부장(사진 우측)이 최현주 지문위원(경민대 교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자유기고

“꽃피듯이 지방공항... 14곳 중 10곳 적자.” 지난 13일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이 기사제목에서 말해 주듯 현재 지방공항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가뜰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항들이 고속철도, 신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인해 승객이 급감해 답기가 문을 닫는 공항까지 생겨나게 됐다.

이런 와중에 포천시에서는 지역공항이 개항되면 교통여건 개선과 휴양기능을 두루 갖춘 통일시대 한남도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고 거창하게 말을 하며, 2009년 10월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4500억원을 들여 연간 이용 20만명, 100인 이하 중소형 여객항공기 지역공항을 유치할 계획에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공항 폐쇄 및 공사 중단은 가장 큰 원인을 살펴보면 잘못된 수요분석과 타당성 조사, 밀어 주기식 행정, 육상교통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지금 포천시의 경우는 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공항유치를 통해 교통난을 해소한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출·퇴근길 교통체증을 피해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공항을 유치함으로써 포천시 교통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공항 개항으로 신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포천시의 현 시점에서 고도제한 문제로 인해 개발행위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갈 것이다.

또, 선출직 단체장들이 하나같이 외치던 전철유치, 민자고속도로 유치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놓은 공약들이 지금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포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꼭 들어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와 포천모범운전자간의 결연식

경기도포천교육청은 7월18일 관내 4개 초등학교의 교장 및 학생대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14명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모범운전자협회 회장 김재현 등 모범운전자와 초등학교 간 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전한 등·하교 길을 만들기 위해 포천교육청과 포천경찰서 산하 포천모범운전자협회와의 협약서를 교환했으며, 포천모범운전자협회 회장 김재현 등 모범운전자 14명은 포천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위원' 위촉장을 받았다. 지도위원은 앞으로 1년간 3명이 한 팀을 이뤄 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하게 된다.

최길용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학교와 모범운전자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사고 제로지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용경자의 세상읽기 11

공덕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 막연하나마 전생에 지은 죄로 인한 것도 있고 부모님(조상님)께서 살아생전 쌓으신 공덕도 있다고 한다.

우리 옆집의 기혼이 아꼈던 사고를 당했다. 생각하면 한순간의 끔찍한 장면이지만 기혼이 는 말쑥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커브 길에서 레미콘 차에 치였던 것이다. 그런데 자전거는 차 밑으로 들어가 망가졌으나 기혼이는 다친 곳이 하나도 없이 차 밑에서 기어 나온 것이다. 사

학교와 포천모범운전자간의 결연식

원은 앞으로 1년간 3명이 한 팀을 이뤄 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하게 된다.

최길용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학교와 모범운전자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사고 제로지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용경자의 세상읽기 11

공덕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 막연하나마 전생에 지은 죄로 인한 것도 있고 부모님(조상님)께서 살아생전 쌓으신 공덕도 있다고 한다.

우리 옆집의 기혼이 아꼈던 사고를 당했다. 생각하면 한순간의 끔찍한 장면이지만 기혼이 는 말쑥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커브 길에서 레미콘 차에 치였던 것이다. 그런데 자전거는 차 밑으로 들어가 망가졌으나 기혼이는 다친 곳이 하나도 없이 차 밑에서 기어 나온 것이다. 사